

연합감리교회 개정판 사회 원칙

사회 행동에 대한 연합감리교인 들의 세계적 사명

(2024 F3)

사회적 성화와 윤리적 행동의 웨슬리 영성을 붙잡고, 전세계에서 사천명 이상의 연합감리교인들이 연합감리교회 사회 원칙을 다시 검토하고 개정하는 8년여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2020년에 완성된, 이 새로운 초안 문서는 오늘날 가장 긴급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연합감리교회의 대응을 반영하는 것으로, 2024 년 총회에서 채택될 것을 남겨두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개정 사회 원칙

목 차

서문	5
전문	6
창조 공동체	9
서문	9
위험에 처한 창조물	9
A. 생태계의 파괴	9
B.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9
C.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	10
창조물에 대한 청지기 정신	10
A. 인종차별적 환경 보호 정책	10
B. 지속 가능한 정책과 실천	11
C. 식품 정의	11
D. 모든 피조물에 대한 돌봄	12
E. 우주공간을 지키기	12
F. 과학과 전통적 지혜에 대한 긍정	12
경제 공동체	14
서문	14
경제적 과제들	14
A. 세계화	14
B. 가난과 소득 불평등	14
C. 인신 매매와 노예제	15
D. 부정 이득, 뇌물 수수, 그리고 부패	15
경제 정의	16
A. 책임 있는 소비문화	16
B. 농사와 농업생산	16
C. 노동의 존엄성	17
D. 안식과 회복의 시간	17
E. 기업의 책임	18
사회적 공동체	20
서문	20
양육하는 공동체	20
A. 가족	20
B. 독신자들	20
C. 인간의 성	21
D. 결혼	21
1. 아동 결혼	21
2. 일부다처제	21

	3. 이혼	22
다른 사회적	이슈들	22
A.	약물 남용, 알콜과 담배	22
B.	집단 괴롭힘과 다른 형태의 폭력	23
C.	식민주의, 신식민주의와 그 결과	23
D.	존엄사	23
	1.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신실한 돌봄	24
	2. 안락사와 자살	24
E.	도박	25
F.	성평등과 다양성	25
G.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25
H.	음란물	26
I.	의료 실험과 연구	26
J.	장기 기증과 장기 이식	26
K.	생식 보건과 낙태	27
L.	인종주의, 민족중심주의와 종족주의	28
M.	성희롱, 학대와 폭행	28
정치적 공동체		30
서문		30
정부의 책임		30
A.	교회와 정부	30
B.	시민 불복종	31
C.	회복적 정의	31
D.	사형제도	31
E.	형사사법 정의	32
F.	전쟁과 군복무	32
기본적 권리와 자유		33
A.	보건	33
B.	아동과 청년	34
C.	연장자와 노년층	34
D.	여성과 소녀	35
E.	남성과 소년들	35
F.	토착민과 원주민 공동체	35
G.	이주자와 이민자 그리고 망명자	36
H.	장애인	36
I.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36
J.	종교적 소수자	37

서문

연합감리교회는 그 전신을 포함하여, 오랫동안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다채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은 기독교원칙과 연관된 논란거리에 대하여 매우 분명한 입장을 취해 왔다. 감리교회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러는, 구제활동을 행하는 것에 더하여, 동물 학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착취, 인간을 재산으로 다루는 행태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었다. 웨슬러의 발자취를 따라, 일부의 초기 감리교인들은 노예 무역, 밀수 거래, 수감자들에 대한 잔혹한 처우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비슷하게, 연합형제교단(the United Brethren)도 노예제도를 강하게 비난하였다.

1908년, 북감리교회(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North)는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완전한 정의를 요구한 사회신경을 채택한 첫 교단이었다. 그 후 십 년 사이에, 남감리교회(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와 감리교개신교회(The Methodist Protestant Church)에 의해 비슷한 성명서들이 채택되었다. 복음주의연합형제교회(The Evangelical United Brethren Church)는 1946년 연합형제교회 The United Brethren 와 복음주의교회 The Evangelical Church가 연합할 때 사회원칙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1968년 감리교회 The Methodist Church와 복음주의연합형제교회 The Evangelical United Brethren Church가 통합한 뒤 4년 후인 1972년 연합감리교회의 총회는 사회원칙의 새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이는 1976년과 이후의 총회에서 계속 개정되어 왔다. 2008년 교단 총회는 사회신경과 동반한 기도문(Social Creed companion litany)을 추가하였다.

사회원칙은 교회법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원칙은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전통과 가장 일치하는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동시대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총회의 신실하고 진정한 노력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원칙은 신실함과 사회참여에 대한 요청이며, 동시에 예언자적 정신으로 지도하고 설득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나아가, 사회원칙은 연합감리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믿음과 실천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과 적극적인 대화를 갖도록 문제를 제기한다.(¶ 509 참조)

사회원칙은 또한 생명력 있는 문서이다.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필리핀에서의 의미있는 발전을 포함하여 지난 50년간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일어난 주요 변화들을 고려한 끝에, 2012년 총회는 사회원칙이 신학적 토대와 명료함 그리고 세계적 연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책무를 위해 교단 사회부(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는 먼저 미국 내 5개의 지역총회 각각과 대다수의 해외지역총회에서 모임을 개최하여 의견과 조언을 구하였다. 사회원칙 개정판의 초안은 6개 집필팀들에 의해 완성되었는데, 그 구성원들은 교단의 광범위한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편집 수정팀은 온라인 설문조사, 해외지역총회와 지역연회와의 광범위한 협의 그리고 연합감리교단의 학자들, 감독들, 교단기구와 지도자들에게서 얻은 의견들을 취합하여 추가 원고수정을 완성하였다.

특별 편집자 노트.

사회원칙 전체에 걸쳐, “우리”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는 총회를 지칭하고 보다 넓게는 연합감리교회의 구성원들을 지칭한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교회”라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연합감리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전문

연합감리교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은, 현존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를 ‘좋다’ 하시며,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육신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아 치유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인간의 삶과 모든 창조물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활동을 신뢰한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며,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롬 8:38-39)”는 우리의 믿음을 선포한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당신과, 우리 서로간에 그리고 놀랄만큼 다양한 피조물들과 언약의 관계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아가 우리를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청지기가 되어 당신의 동산을 돌보라 부르셨다. 우리가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역할을 할 때에, 피조물의 다른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들만의 특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창 2:7-15). 예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요 13:34-35)

하나님과 온 세계와의 언약관계에서 살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모든 만물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생명의 선함을 확신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 그리고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다. 우리는 부당하고 생명 파괴적인 사회 체제에 참여해 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실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였으며, 창조의 각 부분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나누며 “이들 중 가장 작은 자 (마 25:45)”와 더불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다. 우리는 사람들과 땅의 세계와 매일의 상호작용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스스로를 담아버렸다.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너그럽고 거룩케 하시는 사랑에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자비롭고 정의로우며 동정어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는 어린아이와 추방된 자, 정죄받은 자, 그리고 혼란에 빠진 모두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 예수께서는 모든 세대에게 온 마음을 다한 제자도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과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들과 공감을 나누는 것, 가깝든 멀든 모든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나, 빈곤과 전쟁, 배제를 통해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체제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우리의 교회,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구조 안에서 정의와 돌봄에 대한 옹호를 요청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과 물, 땅과 식물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돌보는, 창조의 청지기로 불러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보편적인 세계교회와 웨슬리 전통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구현된 기독교 가치들에 대하여 감사드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많은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모든 것은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차이들, 곧 신앙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역의 은사와 실천에 있어서 혹은 민족, 문화, 공동체, 신체장애여부, 나이,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에 의해 형성된 삶의 경험들에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를 존중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유의 은사를 부여한 각 개인의

측량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해 확신한다. 우리는 일상의 삶과 일터에서 복음의 신실한 증인으로 사는 것과 교회로서 우리의 신앙 증거를 확대해 나가리라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

차이는 소중한 선물이면서 동시에 벽찬 도전이다. 차이는, 교회로 하여금 신실하게 살면서 사역하도록 그 능력을 확장시켜 준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어려운 제자의 길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의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라 (미 6:8)”는 고귀한 부르심을 따르고자 한다. 존 웨슬리의 총칙은 계속해서 연합감리교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선을 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예법을 따르라”는 신실한 관행을 지키도록 고취시킨다.¹ 비록 우리가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진지한 경청과 철저한 대화 그리고 나눔의 사역을 통하여 진술하면서도 동정의 마음으로 임해야 할 도전들이 우리 교회 앞에 놓여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교회가 인간 공동체의 수많은 다양한 부분들이 함께 모인 하나의 생명력 있는 몸인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신념이나 의견, 혹은 실천에 대한 만장일치가 본래부터 교회의 특징이었던 적도 없었다. 초기부터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들과 사도행전 그리고 다른 신약의 문서들에서 증거된 것처럼, 여러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논쟁들은 실제로 존재해 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심각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여 그 중 일부가 계속해서 교회를 분리시키려 할 때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불일치와 그에 따른 절망에 직면하며, 동의나 만장일치라는 거짓된 주장으로 차이를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용기와 인내로 갈등을 포용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와 결단 속에서, 우리는 용기와 신뢰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논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시는 일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증거라고 받아들이며 인정하고 포용하고자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자 보존자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과 증언의 중심에 놓고자 한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이며, 교회의 사회적 증언이 이러한 은혜에 대한 증거라는 점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일치하지 않을 때조차도 사역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면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다짐한다.

¹“The General Rules of the Methodist Church: The Nature, Design, and General Rules of our United Societies,” *The Book of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Nashville: The Publishing Hous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16).

창조 공동체

서문

우리 복된 주님께서 여기에 심어주신 큰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계시며, 모든 피조물을 속에서 우리가 창조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바라보고 대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에 편만하시며 그것을 작동케 하시는 분으로, 진실로, 온 우주의 절대적 영이십니다.²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각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 가운데 베푸시는 보살핌을 나타내는 증거들이라고 확신한다. 인류와 일반 동물, 식물, 그리고 다른 지각/무지각의 존재들 모두 창조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의 번성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서로의 돌봄에 달려있다. 피조물을 마치 인간의 사용과 소비만을 위한 것처럼 대하기 보다, 우리는 책임있는 청지기로서 행하면서, 창조주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창 1:26-31; 마 6:26-30; 롬 8:22-24). 우리는 또한 창조세계 전체를 치유하는 데 있어 피조물들이 담당하고 있는 각각의 역할을 존중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모든 창조세계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시 148),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치를 얻은 이 복합적 생태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우리는 책임있는 청기기가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돌보는 거룩한 책임에 동의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여, 땅의 풍성함과 다양함을 찬양하며 온 우주와 더불어 창조주를 찬미한다. 우리는 복합적 생태계와 복잡한 생명의 그물망에 속한 구성원들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의 기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창조의 역사 안에 있다고 믿는다.

위험에 처한 창조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간의 행동이 하나님의 창조물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나아가, 우리는 자연 환경의 악화와 대규모 파괴가 전례 없었던 피해를 가하고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 모두에게 위험을 가져왔음을 고백한다.

A. 생태계의 파괴

인류가 의식하지 못한 간에, 우리는 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과 같은 생명 유기체들과 공기, 물과 토양처럼 그들이 거주하는 물리적 환경 사이에 무수한 공생 관계로 구성된 복합적 자연 생태계의 참여자이자 수혜자이다.

과잉소비와 근시안적인 정책, 그리고 천연자원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못하는 여러 관행들은 모든 생명이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너무나 자주 인류는 나머지 창조세계를 마치 일회용인 것처럼 대하고, 다른 생명 유기체들과 그들의 서식지들에 대한 파괴를 무분별하게 용인해왔다. 게다가,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체험과 의견들은 대부분 무시되어 왔다.

B.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는 이미 지구 상의 생명체 전체를 위협하는 극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과잉산업화와 광범위한 삼림벌채, 그리고 화석연료에 대한 과잉의존은 지구 대기권에 이산화탄소, 메탄 그리고 이산화질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² John Wesley, "Upo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축적을 야기하는 인간의 활동들이다.

과거 수십년에 걸쳐 온실가스의 가파른 증가는 이미 해수면의 지속적인 상승과 전 세계 해양의 산성화 증가, 그리고 늘어난 가뭄과 기근 및 극심한 이상 기후 발생 빈도 증가를 가져왔다. 기후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한다. 개인과 교회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 기업 주주들, 또한 경영자, 정부 그리고 국제기구들의 결연한 공동 행동이 없다면, 부정적 영향들은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다.

C.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

석탄, 원유, 그리고 보다 적게는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 연료의 연소가 온실가스의 증가와 이로 인해 대기층의 온난화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이다. 현재의 지구 기후 변화의 추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대체 화석 연료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보급에 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태양열, 풍력, 지열 그리고 수소 기반 에너지를 포함할 것이나, 이것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화석연료의 대안을 찾는 데 있어서, 현재의 문제들을 악화시키거나 새롭게 예상하지 못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해결책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원자력에 대한 의존은 방사능 폐기물의 안전한 보존과 억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비슷하게, 최근 온실가스 증가를 줄이기 위해 토지와 공기 그리고 물을 포함한 지구 생물권에 대한 지반공학의 제안들이 모든 생명체가 의존하고 있는 자연 생태계에 예측치 못한 부작용과 더 큰 불안정화의 위험이 되고 있다.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부터 이행하는 과정은 불가피하게 상품의 생산과 판매 그리고 유통에 크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능한 최대한, 대체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배치에 대한 계획들은, 새로운 고용으로 개인들이 손조롭게 이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일자리와 소득의 손실을 해결하는 사회안정망을 강화하며, 풍부한 교육 및 재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에 투자함으로써 재정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창조물에 대한 청지기 정신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보시고 좋았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을 읽게 된다. (창 1:4, 10, 12, 18, 25, 31).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그를 에덴이라 하는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시었다 (창 2:15, 표준새번역)”고 말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과 모든 피조물에게 부여하신 가치는, 사람들에게 창조물과 그 안에 상호연결된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돌보라고 요청한다.

A. 인종차별적 환경 보호 정책

우리는 자연세계의 환경 악화에서 기인한 부정적 영향들이 토착민, 소수의 종교 공동체와 소수 민족, 빈곤계층, 그리고 다른 사회적 취약 집단을 포함한 소외 집단에게 불균형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형태의 환경 착취와 방치 그리고 불평등에 저항할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실천은 빈곤한 공동체와 개발도상국들이 유해 환경, 산업 공해, 유독 폐기물 처리, 그리고 도시 쇠퇴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 이러한 행위들이 인종차별적 환경 보호 정책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소외된 집단들을 영속적인 하층민의 지위로 격하시키거나, 공기와 땅과 물을 매우 중하게 대할 것을 요청하는 토착적인 공동 지혜의 원천들을 무시하는 정책과 실천방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게다가 이러한 소외 집단은 불균형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천식, 암, 선천적 결손증, 그리고 다른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건강

문제들은 우리의 식수와 음식과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과 물 그리고 공기 중의 오염원이나 화학성 물질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 단체들에게 예방과 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환경보호에 있어 정의로운 원칙과 정책 그리고 실행방안의 도입을 요청한다. 우리는 토착민과 소외된 주민의 지도자들과 기관이 그들의 공동체를 위한 인간의 기초 생필요건, 곧 음식과 물과 주거지 그리고 독성 폐기물로부터 안전한 땅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실행방안과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자결권은 여러 가지 중에서 토양과 대기와 물에 심각한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농업 및 다른 개발에 관련된 정보와 중요한 의사 결정권에 대한 접근을 수반한다.

B. 지속 가능한 정책과 실천

지속 가능성은 자연 세계에 대한 균형을 회복하고 인간과 나머지 피조물 사이의 파괴적 관계를 중단하기 위해 애쓰는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정책과 실행방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정책 및 실행방안은 미래 세대가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확보를 확실히 하면서, 현재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속 가능한 정책 및 실행방안은 모든 형태의 생명과 자연 생태계의 보호에 최우선을 두며, 동시에 인류가 이 땅과 건강한 균형 속에서 살아가도록 돕는다.

우리는 연합감리교인들에게 과잉소비를 삼가고, 물품을 용도변경하여 재활용하며, 오염시키거나 환경에 해가 되는 상품을 피하고, 난방과 교통 혹은 기타 제품 사용에 있어 화석 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임으로써 개인과 가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습관과 실천을 행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한다.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 습관을 바꾸는 것이 수십년의 환경 훼손을 되돌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교회는 인류가 그동안 전지구적 차원에서 가한 생태적 위해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마을, 지역, 국가, 그리고 국가간의 상호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 이러한 상호 협력적 노력은 지각이 있는 모든 존재를 보호하는 정책과 실행방안의 개발 및 시행,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의 촉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책임있는 소비와 지구 온난화 및 기후 변화에 대한 긴급한 행동을 장려한다.

C. 식품 정의 (Food Justice)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지역 중심적이며,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푸드 시스템은 긴급한 우선순위이다. 우리는 특별히 환경의 질적 저하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식량 생산과 구입을 위한 적절한 자원을 빼앗긴 공동체를 위해 건강한 영양분과 깨끗한 식수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정책과 실천을 지지한다.

우리는 또한 생태학적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통해 생산된 건강하고도 자기 문화에 적합한 식량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촉진하는 식량 주권에 동의한다. 우리는 지역 공동체가 어떤 가족들이 길러지고 어떤 곡물을 재배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식량 생산의 지역 통제를 지지한다. 우리는 식량이 생산되는 농가의 노동자들과 지역 공동체들의 접근을 막는 농업 정책과 실행방안을 거부한다. 우리는 원주민들의 땅과 식량, 그리고 물에 대한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에 대해 옹호한다.

우리는 씨앗 품종들과 기타 영농 및 농축산업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유기물들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씨앗 품종들에 특허권을 주고, 이들의 사용에 대해 농부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행태들의 급속한 증가는 전통 작물 재배를 제한시 켜왔으며, 생계 유지를 위한 채무 그리고 더욱 소규모화된

영농을 증가시켜왔다. 따라서, 우리는 종래의 다양한 씨앗 품종들을 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협동조합적이고 오픈 소스의 개방형 노력들을 지지한다.

우리는 또한 탄소배출량이 많아 기후변화의 증가를 가져오는 농업 방식을 축소하도록 하는 정책들을 수립하라고 요청한다. 생산자들은 식품 포장, 배급, 운송 등에 그들이 끼치는 부정적 영향들에 책임을 져야 하며, 농업 생산과 식품 가공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추구해야 한다.

D. 모든 피조물에 대한 돌봄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 사역에 있어 주요한 참여자이며 고유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동물들을 존중하고 인도적으로 돌보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이 회복된 창조의 세계 안에서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때를 보여준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사 11:6).

이처럼 동물을 존중하고 인도적으로 돌보는 것에 대한 약속은, 예를 들어, 농업이나 다른 형태의 노동에 투입된 동물들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섭취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호 규정의 마련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동물들을 서로 싸우도록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인간의 소비를 위해 길러지는 동물들은 건강한 환경과 충분한 음식과 물을 공급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소비를 위해 길러지는 동물들은 인도적인 조건 속에서 사육되어야 하며, 고통과 아픔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도살되어야 한다.

야생의 피조물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제 기구들과 정부, 시민사회단체, 교회, 그리고 관계된 개인 및 집단들이 상호 협력하여 밀렵을 막고 멸종위기에 처한 취약종을 보호하며, 점차 줄어드는 서식지들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집단 멸종을 한탄하며, 동물과 인간이 함께 번성하도록 돕는 지속가능한 정책과 실천을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

E. 우주공간을 지키기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지구만이 아닌 우주공간을 포함한 전체 우주의 질서를 포함한다. 따라서 책임있는 청지기로서 우리의 책무는 인간의 당면한 환경을 넘어서 우리 태양계만이 아니라 다른 은하계 전체로 확장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공간에 대한 부당한 개발과 상업화 그리고 군사화를 반대한다. 우리의 소망은 달이나 다른 행성을 포함한 우주 공간에 대한 탐험과 정착이 평화롭고도 협력적이며 그것의 혜택과 자원이 모든 인류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

F. 과학과 전통적 지혜에 대한 긍정

우리는 우주의 기원과 기능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과학과 이성의 가치를 긍정한다. 또한 우리는 다른 모든 인간의 노력처럼 과학이 오용되고 악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연구를 행하고 그 결과를 적용하는데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고수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

우리는 특히 공기와 토지 그리고 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이 땅과 동물들과의 조화롭고 균형잡힌 삶에 대한 토착 원주민들의 강조처럼 토착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전통적 지혜에 대해서도 긍정한다

경제 공동체

서문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당신을 존재하게 만들고, 당신을 이 땅에 내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유주가 아닌 청지기로 여기에 놓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잠시 동안 여러 다양한 소유물을 위탁하셨으나, 이들에 대한 유일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없습니다. 당신도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듯, 당신이 향유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³

연합감리교인으로 우리는 우리 존재의 모든 것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한다. 우리는 우리가 축적한 자원과 재화에 대한 임시 청지기들이다. 제자도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재정처리와 재정관계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한다.

“이들 중 가장 작은 이들” 곧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방인, 그리고 모든 여타의 취약한 사회 구성원들과 연대하여 함께 하라는 성서의 명령만큼 두드러지거나 여러번 언급되는 다른 성서적 주제가 많지 않다 (암 5:7-13; 마 25:3-46; 약 2:15-16). 따라서 우리는 모두를 위한 정의롭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자 한다.

경제적 과제들

A. 세계화

우리는 세계적 협력이 종종 인간과 환경의 번영에 기여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화가 너무나 많은 사례에서 경제 정의의 실현에 심각한 장애물들을 조성한 것에 대해 애통해 하고 있다. 세계화는 국가 경제들의 통합 증가와 국제 시장체제에서 엄청난 규모의 역할을 하는 다국적기업들의 출현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세계화가 의심할 여지 없이 특정한 재정적 혹은 여러 다른 혜택들을 제공해 왔지만, 반면에 세계화는 기존의 임금과 근로기준을 훼손시키고, 환경 보호를 약화시켰으며,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 손에 세계 부의 집중을 가속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는 보다 싼 값의 재화에 대한 손쉬운 접근을 제공한 덕에 소비과잉을 증가시켰으며, 생산 확장에 필요한 원자재를 얻기 위해 원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 해왔다.

교회로서, 우리는 특히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을 비롯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혜택이 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화는 개인이나 개별 지역 공동체 내지 개별 정부가 다룰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연합 (United Nations), 세계 무역 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 금융 기구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등을 포함한 국제 조직들이 다국적 기업들과 국가 정부들에게 이윤 보다 사람을 육성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경제를 제공하는데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요청한다.

B. 가난과 소득 불평등

우리는 연합감리교인으로 가난, 기아, 문맹, 투옥, 노예, 중독 그리고 질병과 같은 조건들의 약화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했던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한다.

우리는 갈수록 늘어나는 빈부 격차와 세계 인구 중 너무나 적은 비율의

³ John Wesley, "The Use of Money."

사람들의 손에 부가 집중되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 우리는 세계의 상당수 사람들이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 자원을 결여하고 있는 것에 개탄하며, 가난의 근본 원인과 영향력을 뿌리뽑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나아가 우리는 전쟁과 기근, 질병과 사막화와 같이 가난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 애통해한다.

우리는 부의 축적이 하나님이 주신 특혜의 증거인 반면, 가난은 냉대의 증거라고 보는 종교적 가르침을 거부한다. 우리는 가난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도래할 하나님의 통치가 멀지 않았다고 가르치며, 부자 청년에게는 그가 가진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셨던 (눅 6:20; 마 19:23-25) 예수의 말씀에 항상 귀기울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 고백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동등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을 지지하며, 음식과 물, 의료와 교육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빈곤에 처한 공동체들과의 적극적 사역에 매진하고자 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와 수입에 기초하여 우대하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는 또한 온 세대를 끊임없는 가난에 빠지게 만든 불의한 관행과 정책, 그리고 제도를 근절하는 일에 헌신한다.

C. 인신 매매와 노예제

우리는 인신매매와 노예제가 모든 인간의 내재적 존엄과 가치 그리고 모든 개인의 삶의 선택권을 포함한 자율권과 연관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규탄한다. 우리는 노예제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이해를 부인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인신매매는 개인 혹은 상업적 성착취를 포함하여 강제 혹은 기한부 계약노동의 목적으로 인간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인신매매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의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주한다. 특별히 미성년자들과 여성, 이주민들과 난민들, 그리고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취약한 사람들에 속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와 노예제 폐지에 대해 지지한다. 우리는 이러한 악이 창궐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뿌리를 뽑기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한다. 우리는 채굴 산업이나 상품 생산에서 노예, 기한 계약노동자, 수감자나 강제 노동을 이용하는 관행을 거부한다. 우리는 개인, 가족, 교회 그리고 소매업자들에게 생산 과정에 포함된 노동 자원과 근로여건에 관해 스스로 공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소비를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D. 부정 이득, 뇌물 수수, 그리고 부패

우리는 부정 이득, 뇌물 수수, 그리고 다른 형태의 부패 행위들을 공공의 신뢰에 대한 위반이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건설에 대한 장애로 보고 이 모두를 반대한다. 우리는 정부 관료, 기업 경영자, 교회 지도자, 그리고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러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행위의 위법성만이 아니라 정당한 형태의 권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개탄한다. 게다가 이러한 행위들은 법률이 보장하는 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뒤엎고,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를 세워가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다. 그 결과로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사업과 서비스들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공공자금의 유용과 공공계약의 조작이 일어난다.

경제 정의

나는 여러분에게 소명의 위엄에 따라 실천해 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더 이상 태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이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발견하거나 최선을 다하여 행하십시오! 더 이상 낭비하지 마십시오! 유행이나 번덕스럽고 욕심이 원하는 대로 하는 소비를 줄이십시오! 더 이상 탐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대신에 믿음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는 정성을 다하여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사용하십시오!⁴

경제정의를 이루려는 우리의 신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모든 인류와 생명체에 의해 공유되도록 계획된 것이라는 연약적 이해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 오이코스(oikos)나 가정이 고대사회에서 경제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온 세계가 하나님안에 한 가정이라는 포용적 개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정의롭고 공평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추구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다.

하나님의 오이코스의 한 구성원이자 “네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라 (마 5:42)”고 가르치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풍성함을 정의롭고 공평한 방식으로 나누어야 하는 책임을 수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 단체들에게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생존 만이 아니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A. 책임 있는 소비문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비문화는 오늘날 삶 속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인들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정의롭고 공평한 임금 보상을 지지하며,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장려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에 적응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착취적인 노동 행위를 통해 생산된 상품을 피하고 인류에게 유익한 상품의 제조를 장려하도록 자신의 경제권을 행사해 줄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부당하고 유해한 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해 집단적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써, 보이콧과 서명운동, 그리고 주주와 투자 철회의 호소를 포함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한다. 우리는 또한 주주와 피고용인들이 기업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함으로써 도덕적 주체인 자신의 역할을 행사하도록 적극 요청한다. 이러한 행동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들이 복음의 가르침과 만물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교회의 신념에 일치하는 행동을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세계 대부분의 천연 자원을 선진국이 소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공정하며 인류의 번영을 가져올 경제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둔 국제 정책과 협력적 노력을 지지한다.

B. 농사와 농업생산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의 필요에 대한 강조는 매일의 건강한 생명 유지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전 세계 인구의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농사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농업생산이 가진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시켜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생명선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고 농업생산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과 이와 연관된 의사결정이 모두에게 공개되도록 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 방안의 수립을 요청한다.

우리는 지역적이고 가족 중심의 농장을 지지하며 대다수 세계 인구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에 있어 그들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한다. 우리는 기업과 거대 기업식 영농에 의해 농업 생산 수단이 점차 독점되어가는 것을 비판해 하고 있다.

⁴John Wesley, “The Use of Money.”

이러한 독점은 그 지역 공동체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의 축소 그리고 토양과 물과 숲을 포함한 생태계의 악화를 가속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거대한 기업식 영농은 지역 인구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원으로 사용하려 하기 보다, 전적으로 수출용 작물로 생산하고자 하면서 최적의 토양으로 보존하는 영농방식을 약화시켜왔다. 그들은 단일 재배 농사를 통해 토양을 고갈시키고 가축에 의한 매탄 가스의 배출을 증가시켜 환경의 악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안전하지 않은 수준의 살충제와 제초제에 노출시켜왔다.

우리는 지역과 가족, 그리고 공동 영농 방식을 실천하는 농장들의 지속적 운영을 보호하는 규정들을 지지하며, 거대기업과 기업형 영농에 불균형적으로 이익을 주는 정부 정책의 종단을 요청한다. 우리는 지역 공동체가 농사나 여타의 농업생산으로 인해 보다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희망으로 토지의 사용, 작물 생산, 가축 사육, 그리고 지역 서식지에 관한 지역적 참여와 의사결정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먹이사슬의 온전함을 보존하고 농장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자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의 지속 가능한 정책방안에 크고 작은 농가들이 관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C. 노동의 존엄성

우리는 최저 생활의 수단으로서 만이 아니라 개인들이 자기 가정의 번영과 공공의 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노동의 존엄성을 믿고 있다. 이러한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강한 긍정은 안전한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하도록 이끌어 준다.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종종 생활 임금을 의미하는 정당하고 공정한 임금이 보장되는 정책의 제정과 실행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완전고용이 많은 국가와 문화권에서 요원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립하려는 노력들은 매우 의미가 있다. 여전히 교회는 노동자들의 공정하고 온당한 처우를 옹호하고,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임금과 혜택이 주어지는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장시키는 정책을 지지한다.

우리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자신의 유년기를 단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 기회를 포기하고 대신에 기업농가나 제조 공업 또는 추출 산업에서 일하게 만드는 광범위한 아동 노동에 대한 의존에 반대한다.

우리는 노조를 조직하고 단체 교섭에 참여하여 불안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고용정책과 실행방안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단체 결사의 자유를 지지한다. 우리는 또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권리도 지지한다. 우리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영구적으로 대체하려 하거나 조직적인 작업 종단을 불법화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거부한다.

우리는 일당 근무와 주당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지지하며, 모든 노동자들에게 병가나 장례휴가, 투표와 같은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한 기회들, 공휴일과 정식 휴가, 그리고 신생아나 새롭게 입양한 아이를 돌보기 위한 육아 휴가 등을 유급휴가로 보장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D. 안식과 회복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의 일곱 번째 날에 휴식을 취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다 (창 2:2, 출 20:8-11). 우리는 휴식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몸 그리고 정신을 새롭게 하며, 놀이와 여가 생활도 누리고,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도록 잠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확신한다. 나아가 우리는 안식이 인류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타인을 위한 휴식 제공의 시간이라는 것 또한 확신한다.

우리는 모든 연합감리교인들이 지역 회중의 예배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안식일을 지킬 것을 권면한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에게 모든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와 갱신 그리고 친교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정책과 실행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E. 기업의 책임

우리는 기업과 회사가 다른 기관들처럼 선을 행하고 공평과 정의를 증진하며 공동의 삶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책임을 가진다고 믿는다. 자신의 주주들을 위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기업과 회사가 사회 경제적으로 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기업과 회사에게 이윤 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 최상위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업의 지도자들과 주주들에게 환경의 보호와 작업장의 안전과 안정, 그리고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된 모든 법과 규칙 그리고 국제 협약을 잘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공식 조약과 협정이 보여준 오랜 불의와 폭력의 역사를 애통해 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권리와 토지에 대해 이루어진 폭력과 침해에 대한 책임을 기업과 회사 그리고 정부에게 묻고, 정의를 옹호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공공의 선을 장려하는 책임을 기업에 묻기 위한 기제로써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를 권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과 가정, 교인과 교회의 여타 기관들에게 투자 기금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 교육받고, 사람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자신들의 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강제함으로써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다른 모든 방안들이 소진된 후에도, 직접 대화나 주주의 공동행동, 또는 보이콧과 투자철회 운동과 같은 다른 효과적 전략들을 고려할 수 있다.

사회적 공동체

서문

믿음이란 얼마나 살아있고 창조적이며 활력이 넘치는 강력한 것이던가! 믿음은 언제나 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은 이루어져야 할 선이 존재하는지를 묻기 위해 기다리는 법이 없다.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선을 행하고 이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간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이다.⁵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적 종교가 아닌 종교를 모르고, 사회적 성결이 아닌 성결을 알지 못한다.⁶

연합감리교인으로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단언한다 (창 1:26-27, 31; 빌 2:3-8).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성장하고, 가정, 학교, 이웃, 직장과 보다 폭넓은 세상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상호 연결된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제자와 증인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며, 빵을 떼어 성찬을 나누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부름 받았다. 우리는 복음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 증언하고 긍휼의 사역에 참여하며, 다가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로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다양하지만 모두가 같은 지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고전 12:12-31)

양육하는 공동체

A. 가족

우리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가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가족이 아동, 청소년과 성인의 육체적, 도덕적, 영적인 발달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양육과 후원은 가족의 기능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부모와 보호자들이 적절한 배려와 보살핌을 주고, 아이들의 육체적, 영적, 정서적, 그리고 도덕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양육할 것을 권면한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환영받고 인정받아야 할 대상이다. 우리는 생부모가 보살핌의 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이를 행하려 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해 애통해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우리는 대가족과 위탁양육 그리고 입양부모가 주요 양육자로 참여하려는 의도를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조건에서도 출생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아이들이 정신적 외상을 겪게 될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적합하고 세심하며 측은한 마음으로 다룰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적절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입양에 관해 자신과 연관된 의학적인 정보와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 모두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권면한다.

B. 독신자들

우리는 독신자들의 기여를 충분히 인정하며 그들을 차별하거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비판하려는 어떠한 사회적 관행도 거부한다. 우리는 결혼에 대한 독신자들의 결정을 존중하여, 그들이 가족과 공동 생활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할

⁵ John Wesley, Preface, *Explanatory Notes on Romans*.

⁶ John Wesley, Preface, *Hymns and Sacred Poems*.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러한 존중 의식은 홀부모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홀부모들이 겪게 될 과중한 짐과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들이 가진 특별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랑과 후원 그리고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C. 인간의 성

우리는 인간의 성이 신성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단언한다. 우리는 성생활이 개인의 정서적, 영적 그리고 육체적 안녕을 조성하고 사랑과 돌봄 그리고 존중을 기반으로 건강한 성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인간의 성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놀랍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지는 인생의 매우 건강하고 자연적인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성은 자연적이면서도 양육을 통해 형성된다. 한편으로 유전적 요인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아동기 발달과정과 환경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나아가 독신주의, 결혼 그리고 독신 생활과 같이 성과 관련한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다.

우리는 성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동의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 및 그 결정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을 권리와 성적 착취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되고, 적절한 성건강관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지지한다.

D. 결혼

교회 안에서, 우리는 결혼이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이끄는 성스러운 평생의 언약이라고 믿는다.

연합감리교회는 결혼을 성례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서로간의 관계에 기반한 신뢰의 표현으로 결혼을 축복하고 존중한다. 그러므로 결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와 친밀함 그리고 은총과 사랑을 수반한 언약적 유대관계를 쌓아 가려는 약속이 반영된 것이다.

더 큰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민법상의 결혼(civil marriage)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국가에 의한 동성결합(domestic unions)의 법적 인정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이러한 법적 인정은 가족의 안정과 유산상속의 체계적인 규정을 보장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와 이익 그리고 보호를 보증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1. 아동 결혼

우리는 아동이나 18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맺는 결혼 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문화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아동 결혼과 너무 이른 성행위는 미성년 아동의 정상적인 정서적, 생물학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 과정을 저해한다. 특히 미성년인 소녀들에게 너무 이른 성행위와 그로 인한 임신은 신체의 내부 기관들을 영구적으로 손상시켜서 평생 의학적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여러 기회들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결혼할 적령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그들이 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되어 기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젊은이들이 결혼에 있어 동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정 연령이 된 후에 혼인 관계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2. 일부다처제

우리는 여러 배우자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사는 일부다처제도의 실행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부다처제를 강제적

강제적으로 해체시키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일부다처제로부터 추방된 여성과 아이들이 아무런 보조 없이 극도의 빈곤 상태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 자주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일부다처제의 해체에 대해 다룰 때, 최대한의 돌봄을 제공하고 피부양자인 여성과 아이들의 지속적인 건강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우리는 일부다처제 아래 있던 가족들, 특히 여성과 아동을 추방하거나 그들이 성역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교회 사역에 대한 접근을 막는 어떠한 시도들도 거부한다. 대신에 우리는 목회자와 회중이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은혜로운 환원과 환대를 베풀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3. 이혼

우리는 이혼이 애석한 일이지만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갈등 속에 있거나 서로에게 커다란 해가 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소원해 진 경우 불가피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럴 경우, 우리는 부부에게 적절한 상담을 받아 볼 것과, 만일 이혼 절차가 피할 수 없다면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상처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시켜 나갈 것을 조언한다.

배우자에게 혼인 서약에 대한 신의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폭력적인 관계에서 조차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우리는 이혼한 이들에게 교회의 사역을 보류하거나 그들이 목회자나 평신도이건 상관없이 교회에서의 지도력을 행사할 기회를 거부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목회자와 회중에게 이혼한 이들이 종종 직면하는 사회적, 종교적 낙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혼으로 인해 재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른 사회적 이슈들

A. 약물 남용, 알콜과 담배

약물 남용은 의존자에게 정신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엄청나게 해로운 영향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인 결과도 포함하는 말이다. 약물 남용의 혼란이 만연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개인 이용자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나아가 전체 공동체의 삶에 약물 중독과 오용 그리고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약물의 남용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를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세계 여러 곳에서 아편을 비롯한 여러 다른 약물의 남용은 위기 수준의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교회는 건강을 약화시키는 중독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광범위하게 고심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지지한다. 우리는 사회가 중독자들에 대해 쉽게 판단하는 행태를 삼가고 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문제의 정도에 상응하는 각종 자료들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약물 남용이 개인, 가족 그리고 전체 사회에 입힌 파괴적인 폐해를 인식하여, 우리는 연합감리교인들에게 허가나 비허가에 상관없이 중독을 일으키고 정신 능력과 신체 기능을 손상시켜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에 지속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도취성 제품이나 여타의 약물을 삼가하도록 권고한다.

알콜의 소비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금주에 대해 취해 왔던 연합감리교회의 전통적인 입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와인과 맥주를 포함한 주류의 소비가 현명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소비자에게 권고한다. 이러한

행위가 알콜 음주와 남용으로부터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또 다른 고려 사항이다.

상업용 담배 제품에서 발견되는 니코틴이나 다른 화학 물질의 직간접적인 섭취와 흡입이 매우 높은 중독성과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학적 증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한 금연을 권장한다. 이를 권장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니코틴 중독을 극복하는 것의 어려움을 인지한다. 따라서 회중들에게 니코틴 사용을 중지하려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강력히 요청한다.

B. 집단 괴롭힘과 다른 형태의 폭력

우리는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에게 그들이 원하지 않는 공격적인 행위로 가해지는 조롱, 물리적 폭력, 정서적 조작이나 사회적 위협과 같은 모든 형태의 집단 괴롭힘에 대해 비난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집단 괴롭힘은 그들의 정서와 지적 발달을 방해하며, 학교와 이웃 그리고 그들과 연관된 가상 세계와 온라인을 위협하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 집단 괴롭힘은 종종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정서적인 상태에 장기간 동안 대단히 큰 외상의 영향을 남길 수 있다.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이 집단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 제정에 찬성한다. 미성년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포함된 경우에, 우리는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지속적인 성숙 과정을 고려하여 반 집단괴롭힘 정책을 발전시키고 시행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C. 식민주의, 신식민주의와 그 결과

우리는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의 복잡하게 얽힌 유산이 연합감리교회의 세계적 연대관계에 깊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식민주의는 다른 국가나 부족,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 정복과 착취를 통해 전체적으로든 아니면 부분적으로든 지배권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식민주의는 이전의 식민지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적 통제를 유지함으로써 식민주의의 역사적 유산을 지속하는 것이다.

우리 중의 일부는 전체 국민의 복속이나 토지와 다른 자원의 몰수를 통해 커다란 이득을 취한 국가나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반대로 나머지는 여러 형태의 식민주의적 영향과 지속되는 식민주의 역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만성적인 영양부족, 문맹, 질병, 그리고 지속적인 토착 종족의 토지에 대한 침해와 같이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교회가 무고한 방관자가 아니라,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에 깊이 연관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민주의의 괴로운 유산에 대해 개인과 회중을 교육하고 식민주의와 지속적으로 연관이 있는 곳에 대해 적절한 참회를 구하도록 요청한다. 우리는 실질적인 보상행위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연합감리교회가 식민지 유산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D. 존엄사

우리는 모든 인간의 유한한 삶이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생명에서 죽음과 이후의 더 큰 삶으로 이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돌봄이 우리 가운데 머문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러한 확신은 모든 인간의 신성한 가치에 대한 신념과 함께, 우리가 죽음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모든 개인들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하도록 이끌어 준다.

이러한 존엄사에 대한 강조는 개인과 가족의 선택이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의료 기술의 사용은 신중하고 적절하게 조치되어, 어떤 불필요한 고통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는 죽음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언한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는 고통과 죽음이라는 현실에 직면한 개인과 가족을 돕도록 부름 받았다. 우리는 그들이 지금 당장은 경험하거나 느낄 수 없을 지라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은총을 증거해야 한다.

1.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신실한 돌봄

죽음과 임종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인간의 본질적인 위엄과 가치에 대한 신념, 환자의 자율성에 대한 우리의 염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확신에 기반한다. 이러한 기반 하에서 우리는 환자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관계 법령이나 소정의 의학적 규약과 기준에 일치하는 지속적인 치료나 생명 중단 결정에 대해서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려는 노력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와 같이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은 환자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의 호전을 약속하는 치료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생명의 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반대로 이러한 결정은 환자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막을 수도 있는 의료 개입을 중단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우리는 다른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에 있는 말기 환자의 고통 완화 치료가 가진 이점을 인정한다. 고통 완화 치료는 가능한 한 환자를 편안하게 하고, 그의 통증과 고통을 최소화시켜서 죽음의 과정이 방해 받지 않고 진행되도록 돕는 것에 그 중요성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는 환자가 정상적으로 의사 진료를 위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를 대비해 환자가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사전의료의향서로 만들어 놓는 것에 동의한다.

2. 안락사와 자살

생명이 신성한 선물이라는 우리의 확신은, 안락사와 자살의 잠재적인 남용에 관한 끈질긴 질문과 염려와 함께,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가 그러한 행동들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가족들과 궁핍의 사역은 지속하면서도, 안락사와 자살에는 반대하도록 이끈다. 안락사는 의사의 지도와 도움으로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는 자살과 같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안락사는 의사나 전문 의료진이 말기 환자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거나 아니면 약물을 환자가 투약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하거나 지도하면서 이루어진다.

자살은 보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말한다. 자살의 동기는 종종 우울증과 다른 형태의 정신병, 약물 남용을 포함한다. 전세계적으로 자살 시도는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거나 강제적 이주와 생활 터전의 변화, 문화적 압력, 집단 따돌림이나 다른 형태의 폭력에 오랜 시간 노출된 경우를 포함하여 개인이나 가족이 겪는 심각한 위기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안락사나 자살이 용납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교회의 이해와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겸허하게 고백한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의 기저가 되는 복잡한 동기와 요인들에 대해 교인들이 스스로 공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최종 판단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안락사로 죽거나 자살한 사람 그리고 슬퍼하는 그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교회의 사역과 봉사를 거부하는 어떠한 시도도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살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총명한 은총으로부터 차단하지 못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적절한 안내서를 마련하도록 강력히 요청한다. 그러한 안내서에는 경험있는 상담가나 의료 전문가를 추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자살 생존자나 가족 구성원의 자살로 상처를 입은 이들을 외면하거나 비난하기 보다, 우리는 목회자와 회중이 그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제공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E. 도박

우리는 사회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것보다 금전 재산의 취득에 관심을 쏟고 오직 소수를 다수의 희생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도박 행위를 거부한다. 많은 사람에게 도박은 도박을 하는 사람이나 그의 가족들 모두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매우 해롭고 중독성이 강한 행위이다.

우리는 퍼스트네이션(원주민 단체), 미국 인디언, 그리고 몇몇 지역에서 미국 원주민들이 민족자결 행위이자 경제적 생존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써 도박 여가 시설을 설립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비난하기 보다, 교회가 이 공동체들의 희망과 염원에 관해 대화하고 교육하는 일에 힘쓰고, 그들의 역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그들의 자결권과 생존에 관한 지속적인 탐구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본다.

우리는 복권과 카지노, 그리고 운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을 포함한 조직적 도박에 대한 금전적 유혹을 줄이기 위한 건설적 전략의 하나로 재정 이윤의 보다 공정한 분배와 빈곤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한다.

F. 성평등과 다양성

우리는 여성들의 열망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반영하고, 유급직과 지도적 위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표로써 성평등과 성 다양성을 지지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조차 관행과 신학적 가르침을 통해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차별과 여성혐오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이러한 편견이 너무나 자주 여성의 지도력과 참여를 폄하하고 목살하게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여성과 남성을 불평등한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어떠한 신념, 정책과 관행도 거부한다. 우리는 회중과 목사, 안수위원회, 감독과 다른 교회의 임원들이 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의 지도력을 양육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우리는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에게도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정한 접근과 기회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G.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우리는 출판의 자유 및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공적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미디어 회사가 정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운용되어 소정의 언론 규정을 명확하게 준수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미디어와 통신 기술이 일반 대중을 정부와 다른 사회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교육하며, 공공의 선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우리는 미디어의 독점과 소수의 대기업에 미디어의 통제가 집중되는 경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정부가 독과점 금지 정책의 시행을 감시하도록 독려한다.

우리는 미디어가 부도덕한 사람들에 의해 여론을 조작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잘못된 정보나 적대감 혹은 공포심을 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 방송과 신문 뉴스 그리고 다른 연단에서 편파적 발언이 확산되는 것을 개탄하며, 시민과 단속기관이 이를 제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

한다. 우리는 개인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 타인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과 타인에 대한 동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면한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와 다른 통신 기술은 여성, 소수 인종, 장애인, 빈곤 계층을 포함한 소외 집단을 적절하고 다양하게 대표하는데 부족한 모습이다. 우리는 미디어와 통신기술이 모두에게 공개되고 접근 가능해야 하며,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공손과 존중을 장려하는 규범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H. 음란물

우리는 음란물에 전적으로 반대하며 그것이 문화, 가정 그리고 개인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한탄한다. 음란물은 인간의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중한 선물이라는 우리의 깊은 확신을 모욕하고 있다. 음란물에 관한 문제는 전 세계 교회의 안팎에서 급격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이다. 비록 시각 이미지들이 수세기 동안 이용가능하기는 했지만, 성적으로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자료들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이용가능해지면서, 가정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사용하는 젊은층을 포함한 수많은 이들에게 중독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는 모든 연합감리교인들이 성인 착취와 노예화는 물론이고 아동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해 사회와 정부차원의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려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우리는 교회가 음란물의 폐해로 인해 삶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개인적 판단을 자제한 도움과 중독 치료 그리고 보살핌을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한다.

I. 의료 실험과 연구

우리는 질병을 치유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의료 실험과 연구 절차를 지지한다. 우리는 유전 공학을 포함한 의료 실험이 소정의 생명윤리의 기준 척도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환자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되는 의료진의 책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윤리의 기준 척도는 환자의 자율성과 사전 동의의 보장, 의료 실험의 이익과 위험을 다양한 사회 집단에 공정하게 알리는 것, 그리고 의료 실험에 참여한 환자에게 의미 있는 이익을 약속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의료 분야를 중대하게 발전시킬 기회 등을 포함한다.

우리는 가장 최상의 윤리적 기준 척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형태의 의료 실험을 매우 신중하게 감시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우리는 일관된 의료 연구 기준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학술기관, 기업 연구소,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의 강력한 협동을 요청한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개발도상국 국민이나 덜 부유한 사회의 구성원들을 포함한, 빈곤 속에 있는 이들이 의학연구에서 과잉 대표되거나 반대로 과소 대표되어, 연구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요구한다.

J. 장기 기증과 장기 이식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하나의 표현으로써, 장기 기증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전세계적인 부족은 수십만의 아이들과 성인남녀들이 불필요한 고통과 조기 사망의 위험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참여 의사가 있고 또한 참여 가능한 연합감리교인들이 장기 기증 등록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면한다.

우리는 모든 기증이 자발적이어야 하며 기증자와 수여자 모두의 건강과 복리 그리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나아가, 우리는 절도와 강압을 통해 얻은 것을 포함해 장기와 혈액의 매매는 인간

생명의 내재적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인간을 상품으로 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도덕률에 대한 극심한 훼손이라고 간주한다.

우리는 장기 기증 오용으로 부터 취약층을 보호하고 이식 가능한 장기가 잠재적 수혜자들의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장기 기증도 장려하는 법과 정책을 정부와 의료단체들이 채택해 줄 것을 권고한다.

K. 생식 보건과 낙태

우리는 일관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가격의 피임법에 대한 접근 뿐 아니라, 성건강을 위한 포괄적이고 연령 적합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생식 보건을 장려하고 여성과 소녀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역과 계획들 역시 지지한다. 출산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리스크 때문에, 우리는 여성과 소녀들이 부인의학의 치료에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 기업, 교회 그리고 다른 시민 단체들이, 여성과 가임기 소녀들을 위한 예방교육, 의료 진료, 치료, 그리고 상담에 대한 지속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우선 순위를 둘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우리의 책무는 낙태를 용납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우리는 산아제한의 용인된 수단이나 성별 선택과 어떠한 형태이든 우생학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낙태를 전적으로 거부한다. 우리는 근친상간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적 성인연령에 아직 미치지 않은 소녀에게 낙태를 시술 하기에 앞서 부모나 보호자 또는 다른 책임 있는 어른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반드시 요구하는 조치에 대해 지지한다.

우리는 확장적출로도 알려진 임신 후기 중절 또는 부분출산 낙태를 반대한다. 우리는 산모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다른 의료적 치료가 불가능하고 심각한 기형으로 인해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시술의 폐지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생명 간의 비극적인 위기가 태아의 생명을 중단하는 결정을 정당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러한 제한된 조건 하에서, 우리는 낙태의 합법적 선택권을 지지하며 그 절차는 청결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훈련된 의료진에 의해 실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낙태를 고려하는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의료 조언과 목회 상담을 구하고 아이의 입양 가능성과 같은 다른 대안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극 찾아볼 것을 권면한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에 직면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때 기도와 후원을 제공한다. 낙태에 처한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든지, 우리는 그들의 결정과 행동을 두고 그들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거나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어떠한 행태도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주 가임기의 젊은 여성들이 의미있는 삶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삶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보고에 대해 알고 있다. 우리는 목회자, 회중, 캠퍼스 사역자와 다른 봉사자들이 이러한 젊은 여성들에게 자율권을 주기 위한 노력의 최전선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자 이 문제를 제기한다. 덧붙여, 우리는 온정어린 돌봄을 제공하고 여성들이 낙태의 대안을 찾도록 돕는 지원센터를 지지한다.

우리는 생식 보건 서비스의 접근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 너무 자주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빈곤에 처한 여성들은 대개 임신의 시기와 가족의 규모에 대해서 선택하기 어렵다. 그들에게는 안전한 임신 전후의 보살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그런 대리 기관의 부족은 여성들이 직업전선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족한 가족의 자원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서 빈곤의 순환을 영구화시킨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게 생식 보건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임신축진치료, 체외 수정, 배아나 정자 기증, 대리모와 같이 아이를 갖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생식 전략의 사용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우리는 생식의 대안들에 대한 이용 여부의 결정은 주치의와 상의하여 여러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믿는다. 생식의 대안들을 사용할 때는 가장 최상의 윤리적 기준을 따르며, 여성과 아이의 건강과 복리를 우선시 해야 한다.

L. 인종주의, 민족중심주의와 종족주의

우리는 인종주의, 민족중심주의, 종족주의, 그리고 한 인간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우월하다는 잘못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신념이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관행도 규탄한다. 우리는 인지된 인종이나 민족 또는 종족의 차이에 기초하여 개인과 공동체 혹은 다른 사회집단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소외시키며 차별화하는 법이나 정책 그리고 사회적 관행을 전적으로 거부한다.

우리는 회중과 목회자, 감독과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신앙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교육하고, 이러한 사회적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부기관과 기업 및 시민사회 단체들에게도 배제와 차별 그리고 폭력을 조장하는 성명서나 정책 그리고 행동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M. 성희롱, 학대와 폭행

모든 인간의 내재적 가치와 위엄을 존중하면서, 우리는 성희롱, 학대와 폭행에 대해 비난하며 이러한 행위를 교회와 사회 안에서 기존의 행동 규범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간주한다. 성희롱은 직장이나 업무상 혹은 사회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원하지 않는 부적절한 성적 언사나 성에 기반한 언급 혹은 육체적 접근을 일체 포함한다.

성학대 혹은 추행은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위협 혹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 혹은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불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행은 강간을 포함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이나 상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와 위협을 뜻한다. 우리는 아이들과 청소년을 상대로 가해지는 성적 착취에 대해 개탄하며, 교회 안에서 성학대가 발생할 경우 더욱 극악하고 해로운 일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목회자, 회중, 그리고 다른 교회 기구들에게 성희롱 사건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명백한 대책과 실천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러한 대책과 실천방안은 모든 목회자와 교회 직원들에 대한 필수 교육,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는 안내책자,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신고 방법,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교화시키지 못하는 재범자들을 해고하는 강화된 처벌을 포함하여 피해 고충 해결의 투명한 처리를 담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성학대와 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특히 미성년 아동이나 스스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들이 관련된 경우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과 실천방안을 발전시키고 이행하는 것을 적극 찬성한다. 성폭행이나 학대에 대해 근거가 빈약한 신고라 하더라도, 즉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목회자와 회중이 이러한 문제와 연관된 관계 법령을 충실히 따라서 법에 규정된 신고자로서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치적 공동체

서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교훈의 목적이다.” 사랑에 대한 매우 훌륭한 표현이다. 사랑은 모든 미덕의 정수요 정신이며 삶 자체이다. 사랑은 가장 으뜸이며 위대한 계명일 뿐만 아니라, 일체의 명령이다.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모든 것은 이 한 말로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 사랑이다.⁷

정치체제에 대한 우리의 참여는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며 약자를 돌보라는 복음의 명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연합감리교인으로서 우리는, 사랑이 더 나은 사회와 공공의 선을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책임 있는 정치 행위와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 참여는 겸허해야 하며 영속적인 불의에 우리 자신도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시인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정치참여는 동정,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창조의 역사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능력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난, 모든 인간의 본래적 가치를 믿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이해는 존 웨슬리의 가르침의 중요한 주제이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의 구성원 모두에게 인간의 위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호하는 사회와 교회의 조직들을 지지한다. 특히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싸우며 환경친화적 개발을 옹호하는 국제연합(UN)의 중요한 역할에 동의한다.

정부의 책임

A. 교회와 정부

우리는 교회와 국가가 사회 전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고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비록 종교 공동체와 정부 사이의 공식적 관계는 나라마다 다양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기관 사이의 독립성과 온전함을 인정하여 어느 쪽도 다른 기관에 대해 지배적이거나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는 상호 존중의 관계를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정부가 하나님의 심판 하에 있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며 자연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고 공평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확립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선출된 자나 공직에 지명된 자 혹은 정부와 관련된 직책을 가진 자들이 그들에게 위임된 권위와 자원을 지닌 책임 있는 지도자와 청지기로서 행동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우리는 모든 정부 관리들에게 전문성과 정직 그리고 충실함에 있어서 최상의 기준에 미칠 수 있도록 경주할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우리는 모든 정부가 대중의 신뢰를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책임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정책과 실천 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

우리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정부의 정책과 집행에 반대하는 이들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위협, 강요, 불법 감금, 비합법적인 살인이나 어떠한 형태의 강요도 거부한다. 국제법과 조례를 준수하여, 우리는 고문, 노예,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그리고 정부의 공격에

⁷John Wesley, “The Circumcision of the Heart.”

의한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이에 대해 강력한 국제적 제재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우리는 교회가 특정한 정치 정당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고 믿지 않지만,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교회가 복음의 관점에서 담대하게 발언할 것을 권장한다. 나아가 우리는 교회가 더 넓은 세상에서의 정의를 효과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교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B. 시민 불복종

우리는 도덕적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이 제약되고 다른 합법적 방안이 고갈된 상태에서 여전히 불의하고 비도덕적인 법에 대해 불복종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지지한다. 우리는 시민 불복종에 참여한 이들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이들의 위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행동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모든 정부 기관들, 특히 공공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경찰과 관계 기관들에게 시민 불복종에 참여하는 이들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정서적이고 물리적 해를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행동하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할 것을 호소한다.

C. 회복적 정의

복음은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중요하게 여긴다 (마 18:15-20). 범죄나 악행으로 인해 관계가 훼손되거나 깨질 때,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를 행한 이들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만들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어떻게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가해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복적 정의가 강조된 제도들을 정부가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우선시 한다. 회복적 정의는 피해를 복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며 희생자와 가해자 그리고 그 과정과 공동체가 치유되는 방안을 추구한다.

우리는 범죄 가해자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완전한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상담, 교육, 기술훈련, 지역 봉사, 그리고 여러 지원에 대한 허용을 포함하는 전환 프로그램에 대해 교회와 정부 그리고 기업이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회복 보다 보복을 더 강조하는 관행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법집행 기관과 협력하도록 시민들을 독려한다.

D. 사형제도

모든 사람의 내재적 존엄과 가치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연합감리교인으로서 우리가 오랫동안 취해온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극형과 사형제의 시행에 반대하도록 이끈다. 사형제는 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에게 부과된 극형의 하나이다.

비참하게도, 사형제는 인간의 생명 손실과 고의적으로 다른 생명을 빼앗는 일이 혼재된 것이다. 게다가, 사형제의 집행이 가난하고 학력이 낮거나 소외된 인종과 민족 공동체에 속한 이들, 또는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기술 발전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소된 범죄에 대해 잘못된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부당한 사법 정의는 사형제의 공정한 적용과 법 앞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와 일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낳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개인과 회중이 연합감리교회와 그 전신인 복음주의 연합 형제 교회의 역사적 입장에 대해 공부할 것을 권면한다. 우리는 목회자와 회중이 폭력적인 범죄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을 돌보고, 또한 정의와 공감 그리고 치유를 갈급하게 찾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편견없이 지원하는 일에 힘써 주기를 요청한다.

E. 형사사법 정의

존 웨슬리는 재소자들의 여건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캠페인을 벌였다. 한때는, 9개월 동안 여러 감옥에서 적어도 67번의 설교를 한 적도 있다. 그는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비참한 상태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한탄했다. 이러한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는 법규와,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장,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갖는 사법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종족, 민족, 모국어, 국적, 경제적 불이익, 성, 성적 지향, 장애 또는 시민권의 자격 여부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적 집행이나 권력의 남용에 대해 규탄한다. 우리는 모든 형사사법체제에서 편견과 편향성을 감시하는 체계적 방안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기소되거나 범죄 행위로 신고 받은 사람들이 양질의 법률 대리 지원을 얻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가해자, 특히 인명 살상을 가져온 범죄자들의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범죄를 방지하며 억제하거나 없애고, 위험한 가해자들을 격리시키는 법적 조치를 지지한다. 한편으로는 책임에 대한 부분도 강조하지만, 우리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선고와 재소자의 인간다운 대우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는 수감자의 갱생과 회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교도소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교도소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우리는 빈곤과 교육 기회의 부족, 여가활동, 약물 중독 치유와 상담, 정신 건강 서비스, 그리고 직업 훈련을 포함하여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법집행과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주민발의제에 동의한다. 나아가 우리는 고용 기회의 제공, 참정권 회복 그리고 전과기록을 적절한 곳에 밀봉해 놓는 것을 포함하여 교도소에서 사회로 석방되어 돌아가는 사람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하는 노력들을 독려한다.

우리는 형사사법의 개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수감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옹호하며 교회가 그들에 대한 사역을 펴나가도록 권고한다.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수감 이력이 있는 이들에게 종종 가해지는 낙인에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는 예배, 교육 그리고 갱생에 중심을 두고 행해지는 많은 연합감리교회의 교도소 사역에 찬사를 보낸다.

F. 전쟁과 군복무

교회는 전쟁과 모든 여타 종류의 폭력적 갈등을 애통하며 모든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사람들이 평화와 정의 가운데 함께 살아가 그 날을 고대한다.

우리는 전쟁을 외교정책의 도구로써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무력 분쟁의 발발 이전에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 방법을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대의 공격에 대한 동등한 대응이면서, 인명 사상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인명에 즉각적이고 분명한 위협이 되는 공격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선제적 공격에 의존하려는 경향에 반대한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 속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정부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데 거대한 물자를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통해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핵무기의 확산에 비통해 하며, 핵무기 생산의 중단과 완전한 폐기를 요청한다.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시대 이래로 전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왔다. 일부의 기독교인들은 역사적으로 전쟁과 다른 형태의 폭력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또 다른 기독교인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억제되지 않은 공격 곧 독재자와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서, 무기를 드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우리는 군복무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자신의 양심을

살펴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 볼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군복무를 개인 신념의 결과로 선택하는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지지를 보낸다. 이와 함께 우리는 그들이 기독교 신앙의 신조와 제네바 협정의 법령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강하게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자신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병역을 거부하고 비전투원의 역할로 군복무를 한정하는 평화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이러한 평화주의적 신념의 뿌리는 연합감리교회와 그 전신의 역사적 입장 안에 확실히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강제적인 군복무에 반대하며,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고 대신에 군복무를 선택하지 않는 이들이 사회봉사나 다른 창조적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주장한다.

교회로서 우리는 예수의 비폭력적 모범을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회는 군 복무 중인 사람들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육체적 심리적 영적 그리고 도덕적 상처를 안고 사는 재향 군인들, 그리고 병역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가정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체계적 사법정의를 위해 영합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체계적 사법정의를 위해 일하며,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분쟁에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갈등 전환을 위해 교회가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기본적 권리와 자유

우리는 환경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은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지지를 표명한다. 이러한 권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 뿌리를 두고 있으며 (창세기 1:27), 하나님의 사랑을 성육신으로 보이신 예수를 통해 완전하게 확증되었다. 교회로서 우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교회 안에서 보호하며, 모든 인류가 번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 일에 힘쓸 것이다.

세계 인권선언과 여러 다른 중요한 국제 조약들에서 천명되었듯이, 기본권과 자유는 생명과 자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법 앞에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그리고 불법적 감금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된 자유는 공정한 재판, 사생활, 대중 집회, 자유로운 의사표현, 민주주의, 식량과 쉼터의 권리를 포함한다. 나아가 노동자들은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에는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우리는 개인과 회중 그리고 다른 교회 기관이 자신의 권리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강력히 활동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 책임에는 모든 사람들이 연령, 성, 경제적 지위나 다른 차별적 지표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개인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부정하거나 인간의 내재적 존엄과 가치를 박탈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규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사회에서 국적, 종족의 소속, 인종, 연령, 성 정체성, 장애 상태, 경제 조건, 성적 지향, 종교적 소속이나 다른 요인에 기초하여 개인과 집단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차별과 증오 그리고 폭력 행위를 일체 거부한다. 나아가, 토착민과 노예화 된 아프리카 사람들, 그리고 다른 소외된 집단에게 가해진 역사적 과오를 생각하며,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사회적 불의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배상 행위는 물론이고 진정한 고백과 사죄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A. 보건

우리는 보건의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방과 치료 그리고 고통 완화 처치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의학적 진료에 대한 접근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보건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상태이고 접근이 용이한 이들 중에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의료 비용에 직면하면서 빈곤의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는 연합감리교인들에게 모두를 위한 포괄적 건강 보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둔 여러 노력들에 참여하라고 권면한다. 나아가 우리는 모두가 적절한 음식과 물, 안전한 주택과 건강한 환경을 포함한 생존 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인간의 권리로서 보건이란, 진료소와 병원의 의료 서비스와 진료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이 가능하며, 양질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건의 조건들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할 때 이용가능해야 하며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교회와 시민 사회 기관에게,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와 진료에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정부 기관과 국제 보건 단체 그리고 의료집단에게 전국 각 지역의 건강과 복리를 위협하는 전염병의 발생 뿐만 아니라 후천성 면역 결핍증(HIV/AIDS)과 같은 세계적 유행병을 신속하게 다루기 위해 서로 협력하여 일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교회로서 우리는 예방 관리에 대한 투자, 충분한 영양섭취, 전염성 질병의 예방과 진료, 출생 전후의 건강, 그리고 요구에 따라 약물 남용의 치료를 포함한, 인류 보건 향상을 위한 여러 다른 조치들과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교회들이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보건 사역들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다.

B. 아동과 청년

우리는 교회와 사회가 모든 아동과 청년의 복지를 위해 지원하며, 그들의 안전과 양육, 대행과 교육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태안, 학대, 유괴, 착취, 인신매매, 무력 분쟁에 아이들을 활용하고 감금하는 생명 파괴적 행위들을 규탄한다. 우리는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위협에 빠뜨리는 가해자들이 대개 힘을 가진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벌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가해자가 부모나 가족, 교사, 성직자, 또는 교회나 공적인 지도자인지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아동의 감금에 교회가 강력하게 반대할 것을 요구하며, 젊은층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정책과 성 정체성, 민족, 능력, 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성, 이주 신분, 종교나 국적에 기초하여 그들을 차별하려는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다. 나아가 우리는 권위적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회와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젊은이들이 의사 결정과 그들의 재능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C. 연장자와 노년층

연장자는 베풀 수 있는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는 교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 단체들이 그들에게 사회에 참여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연장자는 경제적 불평등, 부당한 유산상속의 관행, 부적절한 공중 보건, 그리고 성, 민족, 장애여부와 경제적 조건에 근거한 사회구조적 방치로 표출되는 노화의 취약성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우리는 교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노령화 되어가는 사람들의 필요와 권리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사회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연장자들이 공동체 생활에 잘 통합할 수 있도록 하며 비차별적인 고용기회, 교육과 봉사 기회, 건강관리와 주택에 대한 접근성, 경제적 혹은 심리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노인 돌봄에 대한 양질의 공적 보조 등을 포함하는 연장자 복리 향상 보장을 위한 사회정책들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한다.

우리는 연장자가 홀로 혹은 가족과 함께 살거나 아니면 기관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나, 불필요한 약물이나 그들의 사회참여와 대행에 관한 제약을 통해 그들의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배격한다.

D. 여성과 소녀

우리는 여성과 소녀들의 재능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국적, 피부색, 민족, 성적 지향, 종교, 신체적 기능 또는 다른 어떤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적극 지지한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 단체가 보다 평등한 사회구조와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의 가치와 지혜 그리고 관심사에 대해 인정할 것을 요청한다. 모든 여성은 동등한 교육기회, 신체의 보호, 재생산 정의, 친권과 책임, 고용, 그리고 동등한 임금과 승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우리는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존엄과 가치를 확신하며, 그들의 잠재적 지도력을 키우고 교회와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향상시켜 줄 것을 교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 조직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자기 개발을 제한하는 성별에 따른 기대와 성희롱, 차별, 폭력, 가정과 직장에서의 학대, 인신매매와,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여러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교회와 모든 정치적 기관과 시민 조직에게 여성과 소녀들이 번영하여 사회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기여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정책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다.

E. 남성과 소년들

우리는 남성과 소년들이 교회와 사회에 대단히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우리는 국적, 피부색, 성적 지향, 종교, 신체적 기능이나 다른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남성과 소년들의 동등한 기회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

이러한 권리 및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와 정부 그리고 시민 단체들에게 모든 남성과 소년들의 존엄과 가치가 인정되고 확증될 수 있도록 공평한 사회구조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나아가 교육, 고용, 임금과 승진, 그리고 친권과 책임에 대한 남성과 소년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요구한다.

우리는 남성과 소년들이 괴롭힘, 폭력, 차별, 가정과 직장에서의 학대, 인신매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자기 개발을 제한하는 성별에 따른 기대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고 단언한다. 우리는 그들이 번영하여 사회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기여할 수 있도록, 남성과 소년들의 잠재적인 지도력을 키워주는 기회의 창출을 독려한다.

F. 토착민과 원주민 공동체

우리는 토착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를 존중하며 세계인권선언에서 표명한 기본권을 다른 이들과 함께 그들도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확고히 주장한다. 우리는 원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집단학살 행위를 배격하며, 토착 원주민과 맺은 정부의 조약과 계약을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원주민과 그 부족들이 자신들의 자치권 행사의 권리가 정부와 법원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동참한다. 원주민들을 주류 사회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조직화된 시도들에 맞서,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회생시키려는 원주민들의 활동에 지지를 보낸다. 우리는 토착 원주민들이 자신의 토지와 물 그리고 다른 자원에 대해 통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토착 원주민들을 그들의

터전에서 강제적으로 추방하려 하거나 그들의 자원을 강제적으로 몰수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규탄한다.

G. 이주자와 이민자 그리고 망명자

우리는 추방되거나 국적 없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주자와 이민자 그리고 난민들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권리를 분명하게 인정한다. 우리는 오늘날 세계가 지속적인 전쟁과 교전, 열국의 간섭, 기근과 기아의 확산,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그리고 국민국가의 자국민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관리 실패와 같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나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특히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착취와 폭력 그리고 학대에 쉽게 노출되는 난민들의 취약한 현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연합감리교인들에게 이주자와 난민 그리고 이민자들을 그들의 회중 안으로 환영할 것과, 까다롭고 때로는 긴 이민 정책 처리 과정을 돕거나 음식, 주택, 교육, 취업과 이외의 다른 필요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유랑자와 그 가족을 이주자나 이민자 혹은 난민이라는 그들의 신분을 기초로 범인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처벌하려는 어떠한 법과 정책에도 반대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난민들을 구급하여 그들을 비인간적이고 비위생적인 조건에 두려는 시도들을 규탄한다. 우리는 특히 부모와 미성년 아동들을 갈라놓는 가족분리의 정책들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러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영리목적의 강제수용소 존립에 대해 반대한다.

H. 장애인

우리는 신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완전한 인간다움을 천명하고, 또한 그들의 재능을 인정한다. 우리는 장애인들이 지역교회와 더 큰 공동체의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의 제거를 강력히 요청한다. 비록 우리의 국제적 연결 전체에 걸쳐 보편적으로 용인된 용어는 없지만, 장애인은 인지적, 신체적, 그리고 발달과 지각에 있어서, 혹은 신경 과학적, 지적, 심리적 뚜렷한 제한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우리는 교회가 그동안 장애인들에게 부정적 의미의 꼬리표를 붙이고, 모든 범위내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 생활 참여에 대한 공간을 제공해주지 못했으며, 경멸적으로 “장님”, “절뚝이”, “귀머거리”와 같은 말을 사용함으로써 오명을 씌우고 차별해왔음을 반성한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교회와 사회에서 간과되고 과소평가되곤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참회와 진심 어린 귀기울임으로, 그리고 장애인들과 함께 협력적 사역을 행함으로써, 장애인들이 개별 교회와 다른 교회 기관의 선교와 사역에서 그들의 지혜와 재능을 기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민사회, 기업 그리고 정부의 지도자들이 모든 장벽들을 제거하도록 노력할 것과, 장애인들에게 전체 사회에 그들만의 고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건강 보험, 취업, 교육, 주택과 교통, 그리고 차별로부터의 자유라는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한 보장을 요청한다.

I.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모든 사람은 신성한 가치를 가지며 기본적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동등한 권리와 자유 그리고 보호를 옹호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는 공유된 물질 자원, 연금, 후원인 관계, 쌍방의 위임장을 비롯해 공동 분담, 책임과 채무, 그리고 법 앞에 동등한 보호를 포함하는 계약관계에서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여러 합법적

청구에 대한 적법한 주장을 보호하는데 있어 평등과 정의의 분명한 문제를 알고 있다. 나아가 많은 국가에서 성 소수자들이 사회적 낙인, 차별, 강압과 폭력에 지나치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정부, 기업과 시민 단체에게 가진 능력을 다 모아서 그런 불의한 처우에 대항하고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J. 종교적 소수자

우리는 종교적 소수자들이 평화롭게 예배하고 자신의 신앙 생활을 차별이나 박해의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 우리는 다른 신앙에 속한 이들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어떠한 개인, 집단 그리고 조직의 행위에 대해 규탄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태도나 행동을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명령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정부, 기업, 교회, 그리고 다른 시민 사회의 단체들이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존하고 지켜주는 노력에 함께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우리는 종교적 의복과 상징을 금하는 법과, 무관용과 증오나 폭력을 조장하는 공직자들의 성명서와 같은, 종교적 소수자들을 향한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편협한 행동에 반대한다. 우리는 종교에 대한 미디어의 책임 있는 보도를 요청하며 종교적 소수자에 관한 고정관념과 허위의 유포에 대해 규탄한다.

우리는 모든 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부당하며 불필요한 법적, 정치적 그리고 재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 우리는 또한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지지하여 다른 이에게 신앙을 부과하고 강요하거나, 그들이 어떤 종교적 전통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 이를 유지하고 참여하도록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거부한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것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CHURCH & SOCIETY

The United Methodist Church

Living **FAITH** Seeking **JUSTICE** Pursuing **PEACE**

CREATED FOR: (20244 F3))